

1.종교다원주의 배격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32호
10월 12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한국교회 기도의 날’ 나라와 교회 위해 기도

서울시청 앞에서 나라와 교회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한국교회의 저력을 보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시대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한 죄, 세속적 문화를 거룩한 예배와 찬송에 혼합하는 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정치와 성실과 근면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적인 성공비결을 찾아 살아가는 죄를 회개합니다.”

“온 국민이 각성하여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에 상반되는 사상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지금의 헌법에 기반한 국가권과 안보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복음의 물결이 북한을 뒤덮게 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통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열원에 18호 태풍 ‘미탁’도 비껴간 10월 3일(목) 낮 세종로 일대로, 남대문로 등 서울시청 일대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 자녀

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이 주관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까지 “모이자! 찬송하자! 기도하자!”라는 주제 아래 수십 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전국의 지역별 기독교연합이 함께 기획하여 준비하였으며, 전국 전역에서 끝으로 교회와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청년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청년 등 평신도들이 교역자와 순서를 나누어 맡아 ‘회개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등 일곱 가지 기도 주제를 가지고 각각 찬송, 성경구절 낭독, 주제별 기도문 낭독,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운영위원장 임영문 목사의 사회로 윤보환 목사(기

감 감동회장 직무대행)의 개회선언, 김선규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의 취지문 발표에 이어 함께 애국기를 제창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전심전력하여 2시간 동안 “교회가 본디의 참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및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근간이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신앙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성문화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기 위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충만을 받기 위하여” 찬송하며 기도하였다.

기도 순서에 이어 참석자들은 다 함께 “나는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등 12가지 조항으로 된 나의 믿음과 결의”를 선포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주 안에서 협력하기로 다짐하였다.

행사 홍보위원장이여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의 광고와 인사말, 탈북민 돌기 성금 전달식에 이어서 김재용 목사(예장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8백여 청년들이 질서 유지와 안내 임무를 맡아 헌신하고, 3백여 교역자들이 순서지 등 행사 유인물을 나눠주며 봉사하였다.

본교단에서는 전직총회장 김상용 목사와 총회장 신재영 목사가 기도문을 낭독하고 주제별 기도회를 인도하였고, 청년 권요셉 형제가 성경구절 낭독을, 성윤주 지휘자가 애국가 제창을, 송해원 지휘자와 정영환 형제가 찬양곡 “두려워 말라” 찬송 순서를 담당하여 은혜롭고 성령충만한 기도회가 되도록 헌신하였다.



시청앞광장에서 평화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로 가득 차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시청앞광장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가득 메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추대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상설기구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 열려 총회장에 김종준 목사(웅동산교회), 목사부총회장에 소강석 목사(사에덴교회)를 각각 추대했다.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 및 법인이사회 증원을 비롯, 목사정년을 연장(70세에서 75세), 쿼터신학 이단 결의,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등 급작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총회에선 우선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차별금지법, 낙태죄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총회 신학 신대원과 지방신학교에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편향교과서에 관한 강좌를 개설기로 했다. 아울러 교회학교 전 세대를 위한 공과교재를 제작해



‘동성애는 죄’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시키고, 낙태죄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통해 법·교단적으로 개정안 마련을 촉구기로 했다. 총회기관 건축위원회가 요청한 ‘제2회관’

신축은 결국 찬반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투표로 찬성 509표, 반대 652표로 무산됐다. 이밖에도 격론이 일었던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는 그대로 유지기로 했다.

CTS기독교TV 국군의 날 특집

원로군목 이상강 목사의 군 선교 간증과 60년 목회 여정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특집으로, 대한민국 군 최초 합동세례식을 집례한 원로군목 이상강목사(81세, 대구 동산중앙교회)가 출연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군 선교 간증과 60년 목회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대한민국 군 최초 합동세례식 집례한 군목 이상강 목사의 간증〉

1968년 7월 13일 육군 보병 제9252부대 군목으로 부임한 이상강 목사는 기도 가운데 부대원 3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군병들로 세워지는 비전을 받는다.

그 이후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일 당한 장병들을 돕고 복음을 전한 이상강 목사의 섬김의 목회를 통해 최초로 기독교 명칭을 사용한 ‘사무엘

중대’가 탄생되고, 부대원 3천 명 전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1971년 9월 13일에는 이상강 목사의 집례로 대한민국 최초의 군 합동세례식이 거행된 이후 지금까지 진중세례를 받은 장병들의 수가 500만 명에 달한다.

군 선교 부흥에 도화선을 그은 이상강 목사의 군목 활동은 1985년 국방부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십자가 군병들”에 기록되어 전군신자와 운동을 일으키는데 놀라게 사용된다.

국군의 날 특집 이상강 목사의 간증은 2019년 10월 1일(화)국군의 날 당일 오전 9시 20분에 CTS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방송되었다.

(특집: 10/1(화) 오전 9시 20분, 재방: 10/8(화) 저녁 6시, 삼방: 10/15(화) 새벽 1시 20분)



예장통합피어선, 제27회 정기총회 개최

총회장에 김희신 목사 선출 등 임원개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피어선총회 제27회 총회가 지난 9월 23일(월) 오후2시 경기도 평택시 용미동 소재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3층 채플실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롬 1:16)’라는 주제로 열려 각종 회무처리를 했다.

회무처리에 앞서 드려진 1부 예배는 서기 김홍양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김영실 목사의 기도, 연합회회장 주문규 목사의 성경봉

독, 장은도 목사의 특송, 경기남노회 노회장

전득춘 목사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동성애 반대 및 성평등 조례반대를 위하여’, ‘병력대학교 정상화 및 피어선 총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 후 총회장 김희신 목사의 뱀전 1:13-16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구별됨’이란 제목의 설교, 회계 정향애 목사의 헌금기도, 피어선 신학전문대 대학원장 유윤중 교수의 격려사, 증경총회장 한동철 목사의 축사, 서기 김홍양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원종분 목사의 축사로 마쳤다.

2부 김희신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에 이어

3부 사무처리는 총회장 사회로 직전 강원노회장 이은혜 목사의 기도, 회원심의 보고, 회원점명, 기회선언, 각부 보고를 유인물대로 처리기로 했으며, 임원은 총회장을 선출한 후 총회장에게 위임했다.

성결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 산학협력단(단장 정희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공동 사업인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 7개분야(연극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운영단체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성결대 산학협력단은 본 사업관련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원, 총 200여원의 사업비를 수주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 운영되며,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까지 약 50여명의 소요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지원 사업이다.

성결대 산학협력단은 2017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 문화예술교육의 수혜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선정 및 강사 배치를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으며, 연중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문화예술교육 사업운영본부(본부장 이원현 교수)를 출범했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본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기지역 수혜 대학교 수는 2019년 사

업기준 현재 812여 개교이며, 강사는 약 410여 명에 달한다.

그동안 성결대 산학협력단은 2017-2019년도 전국 17개 시, 도지역의 지정 및 공모로 선정된 운영기관(단체) 중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 운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지역 예술강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사업 등을 통해 학교 및 학생에게 폭넓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장한영총회, 총회장에 유재봉 목사 선임

총회 규칙 전문 새롭게 제정하고 교단 정체성 확립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제104회 총회가 9월 23-24일 서울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총회’(요 17:22)를 주제로 개최하여 총회장에 유재봉 목사를 선임하고 규칙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개회예배는 서기 이영열 목사의 사회로 중부노회장 김득환 목사의 기도와 총회장 신상철 목사가 잠 1:1-6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맛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후에 회계 한미람 목사의 봉헌기도, 성찬식은 부총회장 유재봉 목사가 집례하고 직전총회장 김시흥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신임총회장 유재봉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삼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원들



의 기대에 부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총회’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게 믿고 오직 성경의 계명에 절대 순종하는 총회로 단단히 세워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규칙 전문을 새롭게 제정해 통과시킴으로써 교단

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규칙 전문에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WCC, WEA를 반대한다. △지유주의, 신정통주의, 신비주의, 기복변영신학, 신사도운동을 반대한다. △로마 가톨릭과 신앙 직제일체를 선언한 NCKK를 반대한다.

한기보협, 기독교보수TV 개국예배

사이버신학 개원 및 미스바 회개기도도 함께 가져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9월 24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비전센터에서 기독교보수 TV개국, 사이버신학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다.



로고스 회장 박형철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공동회장 임준제 목사의 기도, 박기경 목사의 성경봉독, 연세대 음대교수 김진경 목사의 특별찬양, 영성총회 총제 예영수 박사의 마 4:23-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

수부흥방법’이란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오순절총회 박정옥 목사의 봉헌기도, 기독교문서선교회 회장 박영호 목사의 격려사,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 기독교보수TV 김영구 실장에게 감사패 증정,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대학원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기독교보수TV 개국과 사이버신학을 개원하기까지 진흙이 예쁜 도자기로 태어나는 연단과 같이 오늘 TV개국과 사이버신학 개원을 위해 많은 회원들의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 주었다”며, “보수교단의 사명인 성경원형을 잘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지도자포럼

“장례문화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자”



부혜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는 지난 9월 26일 오후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3연수실에서 제2차 부활실천신학 천국환송지도자 포럼을 갖고 아직도 변하지 않은 혼합적인 장례문화를 성경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례문화를 성경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모두가 감당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천명하고 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기독교 장례에 대해 △한국교회는 책임감을 통감하며 성경적 부활실천의 천국환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단이 앞장서줄 것을, △기독교 상호연계는 상호

적인 이익을 뛰어 넘어 바르게 기독교전국문화 정착에 동참해줄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부활이 실현화 되는 천국 환송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각 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는 부활실천신학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해 바른 교육에 임해줄 것을, △각 언론사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포럼에서는 ‘기독교장례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건우 목사가 ‘결박이 아니라 자유이다’, 김관철 목사가 ‘진짜 죽음인가? 새로운 시작이다.’, 조정민 목사가 ‘천국 환송예식의 신학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이날 부혜본선교회는 이날 중추영광장례식장대표 김태관과 MOU도 맺었다.

세션협 제141차 월례회 연합교회에서 열어

한규섭 목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하의 설교

세계선교협의회(회장 한규섭 목사, 이하 세션협) 제141차 월례회가 9월 26일(목) 오전 11시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71번길 70 소재 연합교회(전순임목사)에서 개최하여 1부 예배, 2부 회의의 순으로 진행하고 기도와 진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1부 예배는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웅성한교회)의 인도로 김순양 목사(예수사랑교회)의 대표기도, 김서경 목사(열방순복음교회)의 ‘십자가의 사랑’ 특송, 한규섭 목사(남동제일교회)가 행 16: 6-10 말씀을 본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선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진자 목사(침사림교회)의 봉헌기도, 천근과 장로(영원교회)의 인도로 참석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선교협의회를 위해서, △회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1부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회장 한규섭 목사의 사회로 서기 진인숙 목사가회원점명 17명 참석,

회의록서기 황정희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임양보고 임양실장 김경수 목사(필리핀에 체류 중), 임양회계보고는 전종호 전도사, 회계보고는 송민자 목사, 총무보고는 전순임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각각 보고했다.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 위해 기도

제68차 총회 제5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5회 임원회가 지난 9월 30일(월)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나라의 안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한 뒤 각종 회부를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건수 목사의 기도, 재무 한순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행 1:6-8 말씀을 본문으로 '민족을 살리는 한'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위정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영적부흥을 이루어 어려운

위기가 곧 기회가 되도록 기도할 것'을 호소했다.

한순남 목사의 축도 후 곧바로 의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이정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이정진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2019 전국신학생연합 개강수련회, 부흥사회 하계수련회, 2019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2020년도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 아시아태평양 신학대학원 이사회 및 임원회의 국제총회장 심음재 목사 참석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 폐쇄 청원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10월 3일 개최되는 한국교회 기도의 날 기독교연합기도회 개최 건과 제1회 총회 목회자 평생교육원 교육, 제9차

전국사모단합대회, 캄보디아 반석교회 도움 요청 건, 경기북지방회 순복음본향교회 태풍 피해 교회 지원 건, 10월 28일(월) 개최되는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준비 등의 내용이 보고되어 각종 행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 등 안내



2020년도 목사고시대상자 오리엔테이션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김인규 목사)는 지난 9월 26일(목) 오전 10시 총회본부에서



2020년도 목사고시대상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목사고시 일정 등 목사고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고시위원회 서기 이석호 목사의 사회, 고시위원 이문근 목사의 기도, 이어 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7:5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그

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므로 큰 복을 받아 누리려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김인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목사고시 일정과 성경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임원을 선출하고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목사고시 문제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목사고시는 2020년 2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처리되며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행정학, 목회윤리학, 헌법, 기독교교육, 교회성장학 등의 과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성경고시는 2020년 2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모세오경, 역사서(구약), 사기서, 예언서,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의 과목에 대해 주관식과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되어 평가를 하게 되며 설교 및 면접은 성경고시 이후 실시된다.

제1회 총회목회자 평생교육과정 준비, 현장 점검

총회 평생목회자교육원

총회 평생목회자교육원(원장 김용덕 목사) 교육위원들은 지난 9월 26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에 모여 오는 10월 17일(목)~18일(금)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에서 열리는 '제1회 총회목회자 평생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평생교육과정이 열리는 전원성전 현장으로 가서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교육위원들은 교육과정이 열리는 성전과 접수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 현수막, 숙소 배정, 식당, 교육받는 분들이 움직이게 될 동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행여나 실수가 없도록 맡은 일들을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 평생목회자교육원 교육위원들은 첫 번째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인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서 참가자들이 만족하고 계속 기대를 모으는 총회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총회목회자 평생교육과정은 10월 17일(목) 오전 11시 30분까지 접수를 받고 곧바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교육 일정이 진행된다.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해원 목사)는 지난 9월 24일(월) 꿈이있는교회(담임 김훈배 목



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김훈배 목사의 사회로,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의 대표기도, 홍중화 목사(부안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시 23:1-6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이 본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총무 양희철 목사의 헌금기도와 지방회장 심해원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부를 처리하였고, 꿈이있는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우주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는 지난 9월 26일(목) 오전 11시 세종중앙순복음교회(담임 원본경 목사)에서 지방회 소속 전 교역자와 사모들이 함께 모여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원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무 전용식 목사(순복음점치는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전 목사는 창 1:1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 재무 김영희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축도로 마친 후 M원리전략전도협의회 세종조직원지부(지부장 전운우 전도사) 주관으로 충



북중부본부장 이상호 목사의 M원리전략전도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의 인도로 증경지방회장 황수만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각부 보고와 회부를 처리 하였으며, 교단증경부총회장

조원의 목사(추계교회)의 기도회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3부 교제 시간에는 세종중앙순복음교회에서 맛있는 오로백숙을 오찬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로운 월례회를 마쳤다.

이재웅 목사 차남, 이형은 목사 혼인예배

경남지방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소속 청원순복음은혜로교회(담임 이재웅 목사)의 차남인 이형은 목사가 지난 10월3일(목) 오후 진주MBC컨벤션 홀에서 정은진 자매와 혼인예배를 드렸다.

이형은 목사는 지난 2019년 6월 9일(일)

경남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7년여 동안 신장부식을 하며 투병해 오던 부친 이재웅 목사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여 부친의 건강을 회복시킨 효자로도 소문이 났었는데 올해 목사안수와 함께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부친을 도우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감사하다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포토뉴스



한국교회기도의날 참석

10월 3일 '한국교회 기도의 날' 시청 앞 기도회에 멀리 부산에서 새벽부터 준비하여 상경한 부산지방회 회원들이 기도회에서 기도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생명의 말씀 ■



이강익 목사

· 대광교회
·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을 마시며 살고, 공기 호흡을 하며 살고, 흙을 밟고 살며,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정하신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에덴동산에서 주신 피조물들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창 2:16-17).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의 영혼이 죽고 인간의 육체는 그 죄값으로 저주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종국에는 마귀를 형벌하려고 준비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마 25:41).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르고 먹더라도 먹으면 죽기 때문에 미리 알고 먹지 말아서 멸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이요 인간의 삶에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서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속에 풍성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으로 나타내신 계명을 어기고, 간교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며

로 그 죄 값으로 영원한 지옥신세를 면할 수 없는 저주받고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 인간을 망친 원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속에 있는 '마귀근성'을 썩 몰아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성품을 단 한 가지라도 남겨두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많은 추종세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삼킨 바 되고 '사탄'은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단이 던져진 불못은 지옥(hell, Gehenna)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판의 영원성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예 14:11, 마 5:22, 10:28).

하나님은 '시적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자 역사와 심판지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 13:1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요 18:30) 곧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때를 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마귀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십니다(요 6:38-40). 요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가

이 지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을 얻는 데에는 선행조건이 있으니 곧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롬 1:16-17).

따라서 여기 나오는 '멸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는 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진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겸손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요 6:68)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 정

백석문화대 감사패 수상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지난 10월 3일(목) 전안유관순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충청남도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에서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수보육교제교구 작품전시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었다며 감사패를 수여했다.

루터대-한국교육심리학회, 협약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철)는 지난 9월 24일(화) 학술정보 및 학습컨설팅팀의 지원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위하여 한국교육심리학회와의 업무협약체결을 진행하였다. 한국교육심리학회는 52년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학회이며, 학술적인 공헌을 위하여 매년 학술대회 및 학술식 발간을 진행하고 있다.

장신대 동성애사태 조사해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이 장로회신학대학교 '무지개 사태' 처리 과정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살롱나비는 '무지개 사태'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 해당 징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의 판단 이전에 양심의 고백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목협 대표회장에 지형은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제6대 대표회장에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10월 1일(화) 오전 11시 성락성결교회에서 열린 한목협 대표회장 취임식에서 지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 경신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 목사는 "한국 교회에 경신이 절실히 필요함은 누구나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교육 꼭 필요한가?

2019년에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사이버 교육'을 받으라는 '2019년 성인지 사이버 교육계획' 공문이 일선 공직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성인지 교육을 시키라는 것인데, 이는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여성가족부의 이름에서부터 사회적 성인 젠더가 들어감)가 운영하는 계획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시한까지 쳐서 그 명단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교육과목을 보면 '제1년 안전과 젠더'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한국 사회의 성별 불평등 이해' 등이 들어가 있다. 알핏 보아도 안전과 젠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성 주류화 패러

다임이 공직자들의 공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공무(公務)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성인지 교육'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도, 성 독재(獨裁)를 한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우리는 여기서 '양성 평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젠더'(Gender)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젠더라는 말은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이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의미의 젠더(gender)를 구분하는 개념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즉 젠더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크로스드레스,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인터젠더, 뉴트로이스, 젠더플루이드, 퀴젠더, 트랜스젠더,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트랜스섹슈얼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양성평등을 헌법 제36조 1항에 명시해 왔고, 여기에서 말하는 양성(性)은 남성과 여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각 지자체는 양성평등 조례를 두고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등 14개 지방자치단체는 '성 평등'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 평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 중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냐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다.

이때 전문가들은 우리 헌법이 제3의 성

을 인정하지 않고 헌법에서 성 평등을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양성 평등'과 '성 평등'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의미라고 일부 정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법제관소도 분명히 한법 제36조 1항이 양성(性)의 평등대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05. 2. 3헌가9·10·11·12·1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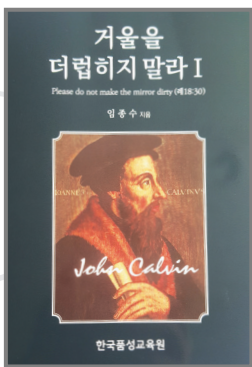
그런데도 여성가족부가 걸로는 양성평등을 말하면서 성 평등 차원의 젠더 교육

을 전 공무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 왜 공직자들이 양성평등 이외의 사회학적 성에 대한 것까지 배워야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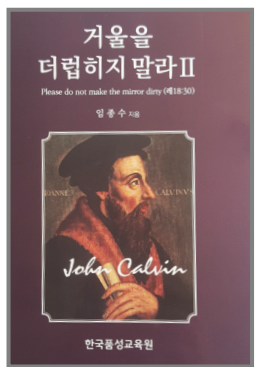
이는 공무원들에게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것으로 세뇌하고, 보호받아야 할 생물학적 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성인 '젠더'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왜곡된 성 인지를 심어주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양성평등의 개념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공직자들도 이런 교육은 거부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낸 피납을 같은 세금으로 공직자들의 의식과 생각과 판단을 망치는 공무원 교육을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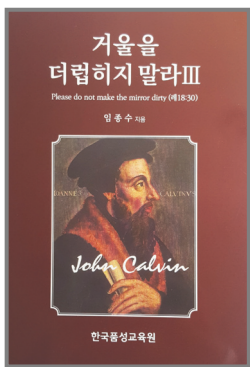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학교교육에 침투한 젠더...’ 주제 학술포럼

동반연 주최, 국회서 박혜원 박사·김지연 대표 등 발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 박혜원 박사는 “성학명은 영적 전쟁이고 사상전쟁이며 서구 교회가 여기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전복되다시피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세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젠더 교육의 위험성과 올바른 다음세대 교육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같이 밝혔다.

박 박사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21세기 시대 문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시대사조이며 결론적으로 성 혁명의 목표는 성별의 해체로 인한 타락과 패륜의 확산 임과 동시에 성 혁명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다음세대 교육을 집요히만류 공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지연 한국가족보전협회 대표는 “한국 종교교육에 나타난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한 발제에서 “정확하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떤 핵심



구성 요소를 갖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젠더 관련 아젠다는 크게 성별이 남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과 성별이 바뀔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붙여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교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교육 내용에 대해 개정 요구를 해야 한다.

또 학교 등이 성교육을 하기 전에 그 상세 사항을 먼저 공지하게 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재진 교수가 초중고등학교 젠더 교육을 중심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해 전한 뒤 토론회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가 나서 결혼과 가정, 동성애, 동성혼 등 왜곡된 성행위에 대해 열린 토론에 나섰다.

2019 초록우산 천사데이 홍보대사로 도티 위촉

6번째 천사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 임명

이동용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MCN 업계 대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샌드박스네트워크의 CC0(저작권료)를 후원하는 주체로,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도티(본명 나희선)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19 초록우산 천사데이’를 1월 1일 재단 앞 도네이션파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0월 4일을 천사(1004)데이로 정하고,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아동을 살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올해 천사데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

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빈곤아동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는 주제에 맞춰 진행된 이번 천사데이 오픈식에서는 아동 대표가 직접 ‘우리가 꿈꾸는 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천사데이 오픈식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꿈꾸는 집의 일부를 시민들이 직접 블록으로 채우는 시민 참여형 전시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문을 통해 실제 주거빈곤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의 모습이 보여져 아동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특히 이번 행사는 초통령 도티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대표 천사로 임명되며 초록우산 천사데이 오픈식을 장식했다. 도티는 천사데이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주위에 소외된 아동을 살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천사데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청계천 일대를 장식한 초록우산에는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아이들이 소망하는 집을 그린 그림이 1004개의 초록우산과 함께 전시됐다. 이 우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청계천 상공에 전시되며, 종료 후 전량 수거해 아이들이 비를 때 걱정 없이 빌려 쓸 수 있는 양심우산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은 “아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어렵거나 큰 과제가 아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천사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6회 초록우산 천사데이는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한 유관단체의 후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국내주거빈곤아동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



신앙 시

이덕재 목사 // 서암순복음교회 담임

밤송이

달으면 찢리는 가시덩이
강력한 방어벽 밤송이
영글기 전엔 열 수 없는
완벽한 잠금장치
때가되면 접근금지
통금길 열려
인내자의 교훈을 준다.

알밤 내주는 익은 밤송이
밤송이의 당당한 분신
견실 육중한 색깔의 옷
강한 용사의 자태
수고로이 기다림에
순종의 모습
주는 자의 교훈을 준다.



알밤은 순수함의 결정체
넘지 못할 절개의 꺼풀
선인은 달 고소한 천국
악인은 뚝은 지옥 맛
깨물어지는 탁 소리
내공의 힘음
보여주는 하나님 선물.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가족 환경개선 돕는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호환)가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사회 편견 해소와 긍정적 변화를 위해 후원생의 후원으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2018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실시되는 동영상 공모전은 미혼한부모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 1분 이내 동영상 제작 작품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접수는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이메일(holtuxx@holt.or.kr)로 받는다.

총 8백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공모전에는 대상 1명(팀) 300만 원, 최우수상 1명(팀) 200만 원, 우수상 2명(팀) 각 100만 원, 장려상 3명(팀) 각 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 또는 홀트아동복지회 미혼한부모지원



센터(02-331-7080~7083)에서 가능하다.

한편, 후원생은 2019년부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직원 약정기부, 미혼한부모가족 긴급양육비 및 심리정서지원,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1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2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3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함)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복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복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생화사진틀(선택형)



▲45인승 버스



▲최고급 리무진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8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0월 21일(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2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신 재 영
총 무 목사 이 경 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혈몬산대부흥회

일시

2019년 10월 28일(월)~31일(목)
새벽 5시30분 · 오전 10시30분 · 저녁 7시

장소

혈몬산교회·기도원(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김남순 목사(혈몬산교회 담임)

강 사 진

부흥사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총무	실무총무	재무	회계	정회원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장로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종교교회	상기찬 목사 동충신순복음교회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덕 목사 해미루대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제1학차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기독교대안학교의 손꼽히는 모델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체육관 12월 준공 앞두고 후원의 손길 절실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 이하 GVCS)가 지속가능한 발전적 성과들로 기독교대안학교의 손꼽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GVCS의 3개 캠퍼스 중 문경캠퍼스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설립에 필요한 금액을 모금중이다. 문경시에서는 체육관 조성을 위해 95억2천만 원을 지원했고 그동안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약 5억원을 헌금해 총 10억여 원이 모금됐다.

그러나 체육관에 필요한 설비, 집기, 음향, 조명, 전광판 등을 합해 2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준공에 필요한 부족액 13억원을 후원할 이들이 절실한 상태다.

GVCS 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기독교계의 자랑인 학교가 되고 싶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인재들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교계가 도와주길 바란다. 교육시설을 확충해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후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1세기형 탁월한 크리스천 인재육성에 헌신한 역할 GVCS

오늘날 소위 특목고 위주로 명문대학입학을 석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기독교학교들이 선전하여

탁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아야 할 것이다. 2019년 현재 글로벌선진학교(GVCS)는 개교 16년 차에 이르고 있으며 음성, 문경, 미국펜실베이니아 캠퍼스를 잇달아 개교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인재양성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수록 졸업생들의 대학진출결과를 통해 교육의 성과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국내 명문대학은 물론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대학에 학생들을 진출시키고 있다. 특이한 점은 GVCS를 졸업한 동문들 대부분이 진학한 대학에서 거의 전분인 선교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GVCS 동문들이 재학하는 대학가 교회들이 부흥하고 영적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경캠퍼스 GVCS 3개 캠퍼스 중 유일하게 실내체육관 없어

이러한 글로벌선진학교 GVCS의 3개의 캠퍼스 중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이 없는 캠퍼스가 문경캠퍼스다. 이를 알게 된 문경시에서 체육관 조성을 위하여 약 5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이 헌금한 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러 약

10억여 원이 모금되었다. 그러나 건축에 필요한 금액은 실내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 음향, 조명, 전광판 등을 합하여 23억 원이 필요하다.

한 평(3.3㎡)건축비(3백만원) 한국운동 등을 펼치며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서인지 아직 목표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준공에 필요한 부족액 13억여 원의 한금이나 물품으로 헌신할 후원자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역사처럼 작은 후원들이 모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작고 큰 정성을 절실하게 필요

GVCS 문경캠퍼스에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의 규모는, 지하 1층의 기계실 94.5㎡(약28평), 지상 1층 1,209.5㎡(약366평), 지상 2층 157.5㎡(약47평) 연면적 1,461.5㎡(440여 평) 규모로 건축 중이다. 지상 1층에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경기 코트가 마련되고 탁의실과 샤워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방송실을 배치하여 각종 경기와 행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인 현재 전체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 동문, 학부모, 교직원, 이사회 등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글로벌선진학교(GVCS)는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선교 현장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뜻있는 목자들이 힘을 합하여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준다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크리스천 인재양성의 진정한 요람으로 발전해가리라 기대하고 있다. (문의: 1588-9147)



백석대 외국인 학생들, 한국인 재학생들을 위한 기금 기탁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진행된 축제 진리축전 부스 운영 수익금 전액을 한국인 재학생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축제 기간 동안 지국의 전통음식과 한국 재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식음료를 판매해 기금을 마련했다.

이번 기금 마련에 참여한 기독교학부 다이스 핀토 디아나 라우라 씨(20·여, Diaz Pinto Diana Laura, 멕시코)는 “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우리 대학의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정성을 담았다.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석대 오명진 학생처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며 “기탁한 발전기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재학생에게 장학

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백석대학교 학생자치단체들(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

회, 12개 학부 학생회)은 진리축전 관련 수익금 500만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신간 안내

거기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전 시대에 비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나 영적 생활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보한 영적 생활의 중심에는 잃어버린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 버리고 형식적인 짧은 기도로 경건의 실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각적인 세상 문화는 기도를 마음을 빼앗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기도할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를 찾았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하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저자: 김남준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 (142*204)mm 288p | 판매가: 13,000원



마음관통 성경통독 온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성경을 후련하게 깨치고 싶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로망일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도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모로 애써보았으나 녹록하지 않았다. 성경 전체를 읽고 깨닫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하기에 도전과 좌절을 반복하며 씨름했다. 때마침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 안식년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 나갔다. 자주 접하지 않는 부분에 더욱 집중했다. 뜻이 막히는 부분을 만나면 원어와 관련 연구를 찾아보고 묵상하며 궁금증을 풀었다. 한 해가 저물려 할 때쯤 66권을 정리한 요약본이 완성되었고 내 마음속에는 제각기 저장되었던 성경의 컨텐츠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모아지는 은혜가 있었다.

저자: 조대희 | 출판사: 규장 | (188*257)mm 464p | 판매가: 22,000원



믿음의 이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신앙을 흔들는 의심을 마주한다. 때로 성경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사람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분이신지 의문이 든다. 저자는 기독교와 성경, 하나님이 어떻게 왜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신앙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크리스천과 삶의 답을 찾기 위해 헤매는 비크리스천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 깊은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정답에 접근하는 책이 아니다.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속 희망의 빛, 심판관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중요성,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 고통의 문제 등 사려 깊은 지혜를 담고 있다.

저자/역자: 라비 재퍼리아스/최요한 | 출판사: 도서출판 두란노 | (140*206)mm 288p | 판매가: 15,000원



성경적 창조론이 답이다

성경적창조론프로젝트 저작물시리즈 01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까닭은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확정된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신진화론이아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진화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명제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처럼, 진화론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이치에 따라서 스스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유신진화론은 모순된 주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이러한 비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자: 김병훈,한윤봉 | 출판사: 합신대학원출판부 | (146*215)mm 242p | 판매가: 12,000원

ENHAKKORE MINISTRY

훌륭한 군사 시니어 2기모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있느니라

장 31:10

일시/ 11월 7-9일
대상/ 40세 이상 장년
회비/ 무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장소/ 과산순복음교회
(충북 과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문의/ 010-5145-3816 (인터뷰 후 등록)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41회 ACTS 선교대회 개최

10월 23일(수)~24일(목)에는 제41회 ACTS 선교대회가 ACTS 양평 캠퍼스에서 개최된다.

제41회 선교대회는 “PASSION(열정)”라는 주제로 수 표교교회 김진홍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23~24일에는 외부 선교단체 부스 설치와 진행되고 24일에는 선교 헌상예배(10:30~12:00)와 각종 선교연구원 세미나(12:00~15:00)가 진행된다.

ACTS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선교실(031-770-7860 /actsmission@acts.ac.kr)로 하면 된다.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성민무료급식센터서 사회공헌활동 실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지사장 박홍진)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이 운영하는 성민무료급식센터(군포제일교회 복지센터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직원들은 성민무료급식센터 주변 환경정리와 저녁식사 배식 활동을 진행했고, 특히 어르신들께 식사를 직접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도로공사 직원은 성민무료급식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뵈고 봉사활동을 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손길

이 필요하면 언제든 힘을 보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는 올해 성민원에 온누리상품권 200만원과 현금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되어 21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민무료급식센터를 2010년에 개소해 지역의 결식 청소년 및 어르신에게 9년간 석식 약 14만여 끼를 제공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부부가 전도하니 두 배의 축복이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인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초신자였던 저는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이 늘 힘들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38년 가까이 무속인으로 우상숭배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내 어머니를 볼 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떠오르지만 끊어 낼 수 없었던 저는 결심을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는 일 년 만에 삼십여 년 넘게 하던 우상숭배를 한 번에 헌신짝 버리듯이 다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는 월세가 밀려있던 터에 많은 빚을 안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없이 여러 곳을 다니며 예배드리고 있던 상황에 가족세트전도를 하는 박영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수요일 예배(평내순복음교회 전도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실제로 전도현장이 나가 전도하며 본을 보여 주는 박영수 목사님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 예수님의 전도법을 실제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전도의 사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석한지 3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팔복교회기도원(이흥, 동백여왕) 성전을 주셨습니다.

많은 빛도 청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빛의 자녀로 다시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남편목사도 신학대학이라는 명예를 다시 주셨고 서울 강남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도하니 축복도 두배로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회를 잃고 알 수 없는 고통과 혼돈하는 생활 속에 전도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희 팔복교회(이흥동백)가 이전예배와 기도원개척예배를 드리고 두 달이 지나 다시 박영수 목사가 전도사역을 지도해주어서 힘을 받고 한층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훈련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나라의 확장인 교회부흥을 위하여 한자게 달려갈 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결국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도하시며 날마다 복음 들고 승리하는 박영수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팔복CBMG교회 기도원 이찬승 원장목사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월드비전 ‘2019 Global 6K for Water’ 성료

〈식수전달 기부마라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3일 삼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2,500여명이 참가한 기부 마라톤 ‘2019 Global 6k for Water(2019 글로벌 6K 포 워터, 이하 글로벌 6K)’를 성료했다.

‘글로벌 6K’는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전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행사 참여자들은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대신 걷거나 달리며 아동들의 일상에 공감할 수 있다.

올해는 11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3일 개최된 서울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달리바리하어로 코리아, 러너스월드, 오리온재단, 제리백, 풀무원, KGC인삼공사, OKF, UCON이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월드비전 홍보대사 배우 유지태를 비롯한 총 2,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거대한 마라톤 물결을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아동의 사진이 프린트된 배번호를 부착하고 달렸으며 참가자 중 일부는 실제 아프리카 아동들이 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제리캔에



물을 담아 들고 달리는 특별 이벤트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코스 중간 중간에 비치된 아프리카 아동 등 신대를 보며 아동들과 함께 달리는 느낌을 만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이 제리캔을 들고 장애물을 넘으며 달리는 ‘하이로프’, 배번호에 프린트된 아프리카 아동의 응원하는 소리를 측정하는 게임과 제한 시간 안에 스탬퍼를 밟아 물방울에 물을 채우는 게임 등 식수위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이벤트

도 마련됐다.

또한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유지태가 이번 행사의 참가자들과 함께 6km를 완주하며 식수위생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배우 유지태는 “많은 아프리카 지역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6km라는 장거리를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며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캠페인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쪽방촌 · 독거노인에 점심 식사봉사

(사)한민족복합동일연합회(이사장 원종문 목사, 회장 김바울 목사)는 지난 9월 25일 마포구 대흥동에 소재한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을 방문하여 쪽방촌과 독거노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수요예배 인도 및 점심봉사활동으로 섬겼다.

지난 20년동안 서울역에서 노숙인과 쪽방촌 및 독거노인에게 사랑의 식사제공 등의 활동을 하던 (사)해돋는마을이 마포구 대흥동으로 이전해 소외되고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밥사탕 나눔 수요예배 설교를 맡은 원종문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란 제목의 설교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 할 때 참된 행복은 주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전하면서 격려했다.

이날 예배는 장현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 김관중 목사의 대표기도,이주형 목사의 헌금기도, 테너 윤석진 교수와 함께 “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김바울 목사의 축도로 드러졌다.

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현일 목사는 “한민족동일

연합회가 주관한 밥사탕나눔예배를 통해 큰 사랑 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해돋는마을 엘도된 노인대학 주5일 강의와 식사봉사 사업을 통해 알 팔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아가도록 영육간의 말씀과 밥사탕으로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봉사 사업 후 (사)월드뷰티랜드(회장 최에스더 신한대교수)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미용봉사에 김광희 교수(경화예술대학교)와 뷰티지원봉사자 학생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독거어르신들께 미용봉사료 설기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소금물) 가글로
올 겨울
감기를 이기자!!!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http://agpgs.aogk.org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 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9차 전국사모단합대회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모시는 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분주하고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분주한 손길을 접고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의 휴식을 갖고
또한 성령으로 재충전받아 섬김의 사역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를 소원하여서
제9차 전국사모회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라는 주제로 준비한 은혜의 자리에
전국 예하성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하며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힘을 얻고 합심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님들의 기도후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사모회 회장 김귀순 -

주제: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에 4:14)

일 자 | 2019년 10월 21일(월)~23일(수) 2박 3일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세곡리 120)

대 상 | 예하성 산하 각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사모님들

등 록 비 | 없음

준 비 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개인용품, 간편한 복장, 편한 신발

문 의 | 회장 김귀순 사모(010-8973-4250)

총무 김세희 사모(010-2610-3816)

후원 및 사모회비 계좌 | 농협 352-1317-6813-13

(김숙향 재무, 010-8372-0091)

2019년도 예하성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일정표

시간	요일	10월 21일(월)	10월 22일(화)	10월 23일(수)
07:00~08:00		그 이름 아름다운 사모들이여~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으로! (예루살렘성전)	조식	조식
08:00~09:00			이동	김정리
09:00~10:00				나눔
10:00~11:00			성지탐방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모원)	찬 양
11:00~12:00			이동	폐회예배 신재영 목사 (교단 총회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접수 및 숙소 배정	이동	새롭게, 활기차게! 사역의 현장으로!
14:00~15:00		찬 양	여행 (하늘공원)	
15:00~16:00		개회예배 조용목 목사님 (교단 정책위원장)		
16:00~17:00		영상시청과 O.T (지방회별 소개 등)		
17:00~18:00		휴식	이동	
18:00~19:00		석식	저녁식사	
19:00~20:00		찬 양	교제 및 휴식	
20:00~21:00		강의 : 김성근 목사님 (노원한나라은혜교회)		
21:00		기도회 후 휴식		

교문



최해선 사모
(다락방교회)

교문



김상욱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포항인디애나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직전회장·감사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예하성 제9차 전국사모회 임원진

1부회장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총무



김세희 사모
(과산순복음교회)

부총무



이정희 사모
(순복음은혜의강교회)

서기



김숙자 사모
(서중순복음교회)

부서기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원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회계



유순희 사모
(예광순복음교회)

부회계



심경희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동행

이제 우리 같은 광야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됐지요?
목적지가 같아진 바로 그 천국 길 말입니다.
심자가만 보고 걸어 갑시다
베드로가 환경을 보았을 때
바닷물에 빠진 그 교훈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방주 속 천정위에 만드신
하늘향한 문만 보고 그렇게 걸어 갑시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아요
젊음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아무리 애써도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뒤에 두고 앞으로만 앞으로만 가야해요
두 갈래 길 중 한길을 믿음으로 택하여
나는 가고 있답니다.
그 길은 광야에 있는데도 좁은 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걸어 가시는군요
천성 문향해 내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함께 갑시다

예수 보혈 의지하여 부끄럼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분 앞에 함께 섭시다
나는 그분 앞에서는 날 서러워서 서러워서 마악 울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만나 반가워서 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바로 그길로 걸어갑시다
사랑의 핏물로 물들여진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겸손히 걸어갑시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성경위를 살포시 즈려잡고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내 아버지 품으로 함께 갑시다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복음편지 쓸 때 적은 내용이다.
따로 떼어 한 편의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혈액투석환자 가족들과 ‘우리가족 힐링캠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몸도 맘도 치유될 것 같아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탁, 이하 본부)와 한화생명(대표이사 부회장 차남규·여승주)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혈액투석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우리가족 힐링캠프’ (이하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 떠나지 못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나들이
이번 행사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네 시간의

혈액투석 치료를 받으며 한겨울 투병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 환자들과 오랜 간병으로 인해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4박 5일 간 제주 리퍼의 집에 머물며 혈액투석 치료와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 일대에서 올레길 걷기 및 한라산, 서리니 숲길, 천지연 폭포 등 관광지 방문과 특산물 시식, 잡수함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본부는 약 3개월에 걸쳐 전국의 혈액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투병수기 등 신청자들이 작성한 사연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혈액투석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탓에 지금까지 여행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만성신부전 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됐다.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모녀 등 이번 캠프를 통해 모두 11팀, 22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간병으로 고생한 아내가 드레스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아름답네요”
2002년 혈액투석을 시작하며 20년 가까이 여행을 가보지 못했다는 유하나(50세, 광주) 씨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딸과 함께하는 첫 제주 여행을 떠났다. “딸이 어렸을 적 치료를 시작하며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가보지 못했다”며 “딸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사설

한국교회 기도의 날, 35만 여 성도 기도

우리나라와 교회가 존망의 고비에 처했다. 망국의 소용돌이로 급속하게 말려들고 있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대략은 알아도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력감으로 포기 상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없이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 준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는 한편 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성도들이 대거 모여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간구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삼기대를 앞세워 찬송하며 전장으로 향하여 갔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면한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범을 좇아 행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교역자들이 이십전전으로 1년 전부터 서로의 사를 타전하고 모이기 시작했다. 의기투합한 소수의 모임이 전국 17개 도·광역시 226개 시군구에 있는 기독교연합체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기도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10월 3일을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정하였고 마침내 기도

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움을 얻기 위해 먼저 성경 말씀을 듣고 이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역자와 청년 성도들이 순서를 나눠 맡았다. 그리고 회중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드디어 전국에서 교역자들과 성도들 35만 여 명이 대한 분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로, 을지로, 서소문로, 남대문로 등에 운집하였다. 온 마음을 다하여, 천지가 진동하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본디의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및 한미동맹 유지와 경제 회복을 위하여, 위정자들이 정년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근간이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신앙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성문화가 되자되기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기 위하여,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5)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와 국민과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떡볶이 노점상에서 시작해 지금은 많은 가평점까지 두고 있는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40) 씨는 지난 9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주변에는 훌륭한 기업가가 넘쳐나지만 최근 취급 받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는 현실을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대표 발언이 알려진 뒤국대떡볶이 애용·불매운동도 맞불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전8기 노점상 성공1화의 주역으로서 TV에도 출연해 젊은이들을 향해 ‘꿈을 향해 미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때도 없었다. 메시지를 내

울고 너는 그르다는 선악의 이중 잣대를 갖다 댔기 때문에 분열은 더욱 확대됐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하고 경제, 외교, 안보 정치, 사회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70년 안보의 묵인 한미동맹은 가장 위태롭고, 원원 경제였던 한일관계도 무너졌다. 북한 바라기 외교로 일관한 결과 주변국으로부터 소외되고 북한은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됐다. 북한이 핵 무장국으로 나설 경우 국민들이 북의 인질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처지가 됐다.
교만은 독선과 불통을 낳을 뿐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부족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의 정부가 되어야 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돌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 7:5)”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성원 박영률 목사의 칼럼집

봄은 언제나 겨울을 이긴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이 책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현역에 있을 때나 떠난 후에도 침묵하지 않고 할 말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도 죄”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성원 박영률 목사가 7년 간 복음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묶어서 발간한 책이다.

박영률 목사는 목회자로, 교육자로, 문학인으로, NGO운동가로 43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다.

저자 박영률 목사는 이번 칼럼집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칼럼마다 날짜를 밝혔으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자는 침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 이책의 수익금 모두는 특수지역의 교육선교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박영률 저(사인), 교육학박사, 철학박사)
하나로 선 사상과문학사 간
p235 / 값 15,000원

제1회 총회목회자 평생 교육 과정 목회자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6)

주최 : 사)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주강사



조용목 목사

-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이사장
- 세계하나님의성회 협의회 집행위원
- 한국신학회 이사장
-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책위원장



정상운 교수

- 전 성결대 총장(제5,6대)
- 현 성결대 신학부 교수
- 현 한국신학회 회장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 18일(금)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수양관 (바울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전화 : 031)298-3739

대상 : 본교단 소속 원로목사, 담임교역자, 부교역자

접수 : 인터넷 신청 교단홈페이지 (www.aogk.org)

입금 : 회비 50,000원 / 농협 352-1649-7314-33 김용덕(목회자평생교육원)



강사진

김용덕 목사

총회목회자평생교육원 원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영동제일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교역자, 영상국장

박건목사

예일여자중학교, 전 교육 미가엘교회 담임

김인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증경총회장
침신교회 담임

신재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이연주 의원

국회의원 무소속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9 정기총회

일시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임원명단

△고 문 :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 배기은 목사(예강호현)
△고 문 :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 문 : 이준원 목사(예강합동총신측)
△고 문 :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상열 목사(예강동신)
△고 문 : 윤덕남 목사(기침)
△고 문 : 임종달 목사(예하성)
△고 문 : 이용주 목사(예하성)
△고 문 : 정부용 목사(예하성)

△대표회장 : 정덕화 목사(예강합동보수진리)
△회장 단 : 회원교단 22인 총회장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 기 : 박찬목 목사(예강합동보수)
△부 서 기 : 김동민 목사(예강동신)
△회 계 : 권오성 목사(예강연합오순절교회)
△부 회 계 : 천점수 목사(예강합동)
△감 사 : 이상익 목사(예강연합오순절교회)
△감 사 : 구쌍희 목사(예강개혁합동)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 박종철 목사, 총무 :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신재영 목사, 총무 : 이경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 배재한 목사, 총무 :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현)총회
총회장 : 도용호 목사, 총무 : 오갑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 정덕화 목사, 총무 : 최달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 김병근 목사, 총무 :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 광점수 목사, 총무 : 구쌍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 이영구 목사, 총무 :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 강문중 목사, 총무 :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 최상열 목사, 총무 :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 이윤숙 목사, 총무 :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 김혜순 목사, 총무 : 박영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 김명희 목사, 총무 : 천점수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김지현 목사, 총무 : 오희대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 오용자 목사, 총무 :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 김태진 목사, 총무 :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 홍복두 목사, 총무 : 박영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 홍정식 목사, 총무 :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리총회
총회장 : 박태영 목사, 총무 :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 이동진 목사, 총무 : 최인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푸른빛)총회
총회장 : 김호기 목사, 총무 : 김영철 목사
세계선교연대총회
총회장 : 박용옥 목사, 총무 : 최요한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87@komet.net